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Wife and Husband in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and Distress

강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최 동 숙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ang-Won University
Assistant Prof.; Dong Sook Choi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wife and husband in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and distress subsequent to the life events, and thus 5 kinds of study questions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achievement of this purpose.

Data were obtained from 371 couples who resided in Seoul through Likert-Type questionnaire, and Frequency, Percentage, Mean, T-Test, One Way ANOVA, Pearson γ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Cronbach α Coefficient were calculated.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experiences subsequent to life events, the level stress recognition and distress was different from wife and husband, and it was generally shown that those are higher for wife rather than husband.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가족시스템은 환경으로부터 투입의 과정이 진행되었을 때 시스템의 상태는 변화하며 특히 스트레스 성

향의 요소들이 투입되었다면 더욱 그러하다.¹⁾ 따라서 가족구조는 가족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모든 가족원들과 함께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²⁾ 부언해서 가족은 환경으로부터 예견했던 또는 예기치 못했던 생활사건에 접하게 되고 이것들이 가족시스템에 투입되어 가족은 이에 각기 반응하게 되고 적응하면서 체

계를 유지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유기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원중의 한쪽이 변하면 모두 변하게 되며 동시에 가족은 전체로서 기능하므로 개인이 경험하는 사소한 사건도 가족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사람이나 환경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중심적인 과정으로 규정하여 스트레스원이 되는 환경적인 사건이 유기체의 존재와 안녕을 위협하는 과정으로 언급된다.³⁾ 그러므로 복잡한 사회와 다변하는 환경속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가족원들은 많은 어려움이 직면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를 잘 극복하여 원래의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 그 자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족이 붕괴할 수도 있다. 또한 가족 및 가족 개개인이 경험하는 규범적, 비규범적 일상 사건은 가족원들에게 재적응을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일상사건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될 때 심리적 손상을 가져오고 때로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란 인간생활의 조건에 있어서 보편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복잡한 사회속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심리학적 문헌을 토대로 하였으며,²⁾ Burgess(1926), Angell(1930), Cavan과 Ranch(1937), Roos(1946), Hill(1949) 등의 연구를 근원으로 해서⁴⁾ 가족스트레스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산업화이후 가정과 사회의 분리는 내면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일면을 지녀 부부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며,⁵⁾ 가족시스템내에서 부부중심의 생활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현상학적으로 다른 경험을 하며 다른 세계에서 살지도 모르고 그들의 세계가 다르게 정의 되는지 모른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 최근 몇년 동안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스트레스 수준과 극복방안 및 관련변인에 대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을 뿐 남녀 또는 부부간의 차이는 연구된 바 없으며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스트레

스에 대한 부부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된다.

2. 연구목적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생활사건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디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부부간의 차이를 규명하여 앞으로 부부의 정신건강치료와 가정 및 부부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며 전반적인 스트레스연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과정에서 사용한 생활사건 설문에서 성평향적 문항을 적절히 배제하였는지의 여부, 즉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문제와 조사대상에서 남편이 잘 협조한 설문지만 회수될 수 있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생활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3. 부부별,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어떤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어떤 생활사건 하위영역의 영향을 받는가.
4. 디스트레스 수준이 부부간 차이가 있는가.
5. 부부별, 생활사건에 따른 스트레스인지수준과 디스트레스 수준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사건과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란 원래 디스트레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포괄적 견지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두 개념을 구별하여 각기 다른 도구에 의해 측정되기도 한다.

Hill은 스트레스를 곤궁에 처한 가족들의 스트레스

원(stressor)에 대한 반응의 기능으로 개념화하여, 아직 다루기 힘든 상태로 남아 있는 스트레스원에 의해 발생하는 긴장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긴장에 대해 가족이 반응하는 상태를 가족스트레스라고 하였다.⁴⁾ McCubbin과 Patterson은 가족스트레스를 가족이 기능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혹은 지각된 요구의 능력간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적응 혹은 적응적 행동을 요하는 상태라고 하였다.⁵⁾ Holmes와 Rahe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경험이나 혹은 부정적인 경험이 건간에 적응과 해결에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으로 보았고⁶⁾ Raykel은 생활사건에 의해 유발된 감정 변화의 정도로 정의했다.⁷⁾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Hill은 스트레스원을 가족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역량있는 정도의 가족생활의 일 또는 사건⁸⁾, 즉 생활사건과 동일하게 보았고, 생활사건은 바람직하건 그렇지 않건간에 이것의 발생으로 개인의 지속적인 생활양식에 중요한 변화를 주거나 개인의 재적응을 요구하는 사건이다.⁹⁾ Holme와 Rahe도 생활사건은 개인생활유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스트레스원으로 생각했다.⁷⁾ 생활사건의 경험시 적응에 필요한 노력의 양으로 표시하여 각 생활사건을 점수화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양적 측정을 시도하였으며 생활사건의 경험이 힘든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수준을 주관적 스트레스라고 하였다.¹⁰⁾

반면에 McCubbin과 Patterson에 의하면 가족성원들이 유쾌하지 못한 것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하였다.⁶⁾ Veit와 Weir¹⁰⁾은 정신건강구조를 긍정적 정신건강상태 즉 일반적인 긍정적 기분과 같은 심리적 복지와 부정적 정신건강상태 즉 심리적 디스트레스로서 불안, 우울, 행동 및 정서적 통제의 상실로 구성되며 정신건강의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근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이론적 모델에서 중요한 체제로 간주되고 단독으로 사용되며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울(depression)에 대한 조사가 보편적으로 행해지는데 이는 디스트레스에 대한 한 가지 지표이지만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일상 경험적이며 생활의 긴장에 대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권경희¹¹⁾는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Langer 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기능의 수행능력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손상된 정도를 가리키는 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구분하여 디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하였다. 왜냐하면 부부가 각기 다른 생활사건에 접하고 또 이들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인지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부부가 어떤 생활사건을 경험하는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손상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디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2. 가족스트레스이론과 생활사건

가족스트레스 이론 가운데 가장 주요한 이론은 Hill의 ABCX모델^{2,12)}이며 그후 Hansen과 Hill, McCubbin, Hunter & Dahl에 의해 약간 수정되었다.

Hill 모델의 A요인은 사건이며 이 생활사건은 가족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B요인은 스트레스원이 되는 사건을 처리하는 가족자원으로 간주되며 C요인은 사건에 대한 가족의 정의와 인지 즉 사건을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주관적 판단이며 X요인은 위기이다. B와 C요인의 결정자는 가족자체내에 있으며 가족의 구조와 가치에 근거함에 틀림없으며 A요인은 가족외부에 있으며 사건 자체의 속성이다. 즉 가족시스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A요인인 사건이 투입되어 가족체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B요인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가족 또는 개인 나름대로 사건에 대해 지각을 한다. 그리고 이들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지각에 따른 스트레스의 양이 다르며 이의 조절정도에 따라 산출 X요인 위기의 정도가 다른것으로 가족시스템속에서 스트레스의 과정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A요인인 사건과 C요인인 가족의 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Holmes와 Rahe의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에 대한 개발과 더불어 사건의 경험과 스트레스를 주는 그들의 결과는 상

당한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여기에 결혼, 자녀 갖기 등 가정생활주기상으로 나타나는 좋은 기회가 되는 예상된 사건, 예고없이 일어나며 미혼, 질병, 미성년의 죽음과 경험을 포함한 예상치 못한 사건, 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반복되고 계속되는 경험인 만성적 사건들을 포함시켰다.²⁾ Pearlin과 그의 동료들은 생활사건을 정상적, 비정상적 사건으로 구분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낮다고 밝혔다.⁴⁾ Faller는 스트레스원을 만성적 스트레스원 즉 가족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장기화되어 있는 경우와 상황적 스트레스원, 즉 가족의 환경내의 악화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포함된 최근의 변화로 분류한다.¹³⁾ McLanahan¹⁴⁾은 3형태의 스트레스 사건을 밝혔는데 첫째는 만성적 생활긴장의 존재로서 저소득, 낮은 학력, 어린 자녀의 존재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하였고 둘째는 중요한 생활사건의 발생으로 역할 또는 지위 변화와 관련된 생활사건들이 정신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력을 갖으며 셋째는 사회적 심리적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자원 결여를 일종의 스트레스로 간주하여 3가지의 사회적 스트레스로 유형화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와같은 생활사건의 긴장감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원이 되는 사건에 대한 "가족인지"를 사건 본래의 곤란성의 지표로 사용하기를 시도해 왔다. McCubbin, Wilson & Patterson¹⁵⁾은 가족 어려움의 지표로서 가족생활사건에 대한 표준화된 점수를 얻기 위해 Holmes & Rahe의 절차를 참고로 하여 모든 가족원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로 구성된 생활사건목록(FILE) 71문항을 구성하였다. Pearlin과 그의 동료들은 긴장정도를 알기 위해 가족인식을 물어 다양한 생활사건의 강도를 표시했다.⁴⁾ 개인의 역할을 맡은 자의 주관적인 해석 및 판단은 가족에 대한 중요한 결과가 됨에 틀림없다. 부부가 어떤 것을 스트레스적 사건으로서 정의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상황의 정의"로 간주되며 이 인지는 스트레스원으로 간주되고 어떤 사건이 스트레스 결과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데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Makosky는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은 남성의 경험과 남성을 표본으로 해 왔으며 아직 남녀 모두를 표본으로 완전하게 일반화 하지 못했으며 더우기 Holmes & Rahe의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의 표본조사는 여성보다 남성의 경험에 더 많이 근거한 사건들을 포함시켰다.²⁾ 또한 생활사건조사의 또 다른 제한은 한쪽 배우자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결과로서 경험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만 다루었다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사건에 대해 개인 또는 가족이 인지하는 주관적 판단으로 스트레스의 양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같이 남녀 모두에게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생활사건의 구성과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할 것이 과제로 지적됨을 중시하여 본연구에서는 이점에 주력 할 것이다.

3. 관련 변인

관련변인에 관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소 일치되지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김윤주¹⁶⁾, 최태진¹⁷⁾의 연구에서 의미있는 차이로 나타났고 Uhlenhuth¹⁸⁾ 등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으며, 결혼년수 증가에 따라 디스트레스가 증가 하였다.¹¹⁾ 학력은 김윤주¹⁶⁾, 정민자¹⁹⁾에 의하면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한 반면, 권경희¹¹⁾, 배종렬⁶⁾, 장병옥²⁰⁾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으면 디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김윤주¹⁶⁾에 의하면 종교와 스트레스와는 높은 상관을 갖는다고 하였으나 Uhlenhuth¹⁸⁾의 연구는 차이가 없었다. Booth²¹⁾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고 Burke & Weir²²⁾의 연구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어린자녀가 있는 주부들의 스트레스⁶⁾ 그리고 디스트레스 수준¹¹⁾이 높았다. 가정생활주기는^{4,6,23)}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하며 1970년대 연구들의 대부분이 가정생활주기 후기단계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를 측정한 결과 혼합,

편부모가족의 학생들이 정상가족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았다.²⁴⁾ 높은 소득은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¹¹⁾, 스트레스 양과 사회계층간에도 반비례 관계가 있다²⁵⁾ 고 하나 Uhlenhuth¹⁸⁾는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부인의 취업과 남편의 스트레스의 관계도 일관성있는 결과를 찾기 힘들다. Burke & Weir¹²⁾는 취업주부의 남편이 비취업주부의 남편보다 건강이 좋지 않고 결혼행복에 덜 만족한다고 밝히며 이는 부부간의 불화와 스트레스에 기여한다고 한 반면에 McCubbin⁶⁾ 등은 주부의 취업이 남편이 경험하는 부부간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스트레스 상황하에 있다고 밝히고, Booth²¹⁾의 연구도 이를 지지한다.

4. 부부간의 스트레스 차이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성역할을 배우며 산업화 이전에 남녀의 역할은 매우 다르고 기능적이었다. 기능주의자들은 family sex role을 도구적, 표현적 역할로 남녀역할을 구분하고 이는 가족기능 수행에 효과적이라고 하며 결혼과 가족영역의 문헌에서도 성역할이 가족기능상 필요하다고 시사한다. 그러나 현저한 분리를 인식하면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²⁾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Gore & Mangione²⁶⁾은 사회역할 이론과 성역할 이론으로 체계화 하였다. 사회역할 이론은 성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생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에서의 남녀간의 차이를 각성이 차지하는 역할 또는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접근 방식이며, 성역할 이론은 성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이 요구되므로 남녀에 따라 역할요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견해이다.

생활사건은 스트레스 연구의 중요쟁점인 반면 스트레스 인지도에 대한 성차이는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으며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남성편향으로 적합치 못하여 이로 인해 여성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커다란 "gap"이라고 시사하였다.²⁾

부부 반응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설명은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2가지 전망 즉 남편의 주관적 사실성과 부인의 주관적 사실성이라는 2가지 사실성이 가능하며, 각 배우자는 그 자신의 욕구, 가치, 태도, 믿음에 따라 다르게 상황과 사실을 인지하므로²⁾ 스트레스 인지도에 대한 성 차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부부간의 한명이 역할긴장을 경험한다면 그의 배우자는 그의 상대자가 역할기대에 대한 순응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역할의 불일치 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²⁷⁾ 이것은 배우자의 생활사건에서 기인된 자신의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로 정의되는 "스트레스의 감염"이다.²⁾

생활사건조사에서 남녀 차이에 대한 상반된 결과들이 있는데 Dohrewend은 남성보다 여성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한 반면 Uhlenhuth, Lipman, Balter와 Stern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²⁾ Gore는 기혼남성에 비해 기혼여성이 정신질환비율이 높은 것은 산업사회에서의 주부의 역할이 긴장이 높음과 동시에 여성의 전통적인 가정역할이 중요시 되지 않으며 여성의 욕구를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¹¹⁾ Bernard²⁵⁾의 연구에서도 남성만큼 여성도 여성역할의 문제점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사노동 분담의 비전통적인 성역할 관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적인 증상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²⁸⁾ Ridley²⁹⁾는 남성들은 가족과 직장영역의 분리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으며 장병욱²⁰⁾도 남성들이 다양해진 여성들의 역할에 대하여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전통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데서 긴장감과 갈등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도구의 작성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는 규범적, 비규범적 생활사건의 경험시 적용에 필요한 노력의 양 및 힘든 정도를 의미하여 디스트레스는 유래하지 못한 것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각하는 심리적 손상정도로 두 개념을 구별하여 도구를 선정하였다.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서 Holmes

와 Rahe의 사회재적응평가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와 McCubbin, Wilson, Patterson의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가 많이 사용되나 전자는 독신자에 보다 적합하고 후자는 가족스트레스에 효과적인 모델이다.²⁹⁾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FILE^{2,15)}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규범적 비규범적 생활사건 42문항을 6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도구로 하였다. 아울러 부부간의 차이를 보다 객관성 있게 비교하려는 연구목적에 비추어 성편향적 문항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고려했다.

그리고 디스트레스 수준의 측정에는 Langer의 Index of Mental Illness³¹⁾, Pearlin과 Johnson이 사용한 우울의 척도³²⁾, Berkowity와 Perkins³³⁾가 사용한 디스트레스 척도를 토대로 하여 2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도구로 하였다.

본 도구는 모두 Likert-Scal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또는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증명하기 위해 Internal Consistency Method에 의거한 Cronbach's α Coefficient를 산출한 결과 스트레스 척도 0.88, 디스트레스 척도 0.90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여 성북구, 노원구, 성동구, 중랑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원구 지역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의 부모들로서 결혼가정이 아닌 가족시스템내의 성인 개개인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의 조사는 1988년 10월 10일~2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동일한 설문내용을 2부씩 묶어 부인은 부인용에 남편은 남편용에 담하도록 하였으며 남편측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많았고 회수율 또한 낮았다.

총 설문지 700부중 460부는 학생들을 통해 배부하

여 382부가 회수되었고 240부는 대상자들에게 직접 배부한 후 응답자가 반송하도록 하여 81부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미비한 것이 많이 제외되어 371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스트레스 인수준은 최근 3년 이내에 「경험하지 않은 경우」 0점, 「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매우 심각하다」에 이르기까지 1점~4점을 주었고, 디스트레스 수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흔히 그런 경우가 많다」에 까지 1점~3점을 주어 환산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 대상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 부부의 연령은 남편(Mean 44세 Mode 48세)이 40대가 62%, 부인(Mean 41세 Mode 40세)은 36~45세 범위가 64%로 가장 많아 대개 중년부부들이 많이 표집되었고 이에 따라 부부의 연령차이는 3~4세가 30%, 결혼지속년수(Mean 16년, Mode 17년)는 16~20년이 43%, 자녀수는 2~3명이 74%, 가정생활주기는 4단계가 63%로 가장 많았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이 43%, 부인의 경우는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정의 수입은 40~60만원이 23%, 60~80만원이 27%로 다소 높은 수입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은 남편 56% 부인 74%가 중교를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 핵가족형태로 나타났다.

2. 조사결과 및 논의

1) 부부간의 생활사건에 대한 경험의 차이

42가지 생활사건에 대한 부부간의 경험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1).

부인만이 가장 많이 경험한 생활사건은 반복적인 집안일에 대한 불만, 시댁이나 친정과 원만치 못한 관계, 허드렛일의 누적, 순으로 가사노동이나 친척과 관련된 일들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해 남편이 동시에 경험했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61%, 34%,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남편만이 가장 많이 경험한 생활사건은 친구의 죽음 및 결별, 직장일로 인한 갈등, 부담스런 휴가가거나 모임의 순으로 대부분 가정외적 생활사건들이며 부인이 동시에 경험했다고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 = 371

변인	빈도		남 편		부 인		변인	빈도	
	f	%	f	%	f	%		f	%
연령	35세 이하	31	8.4	72	19.4	주기	4단계	235	63.3
	36~40세	65	17.5	110	29.6		5단계	29	7.8
	41~45세	115	9	126	34.0	남편의 직업	비숙련직	8	2.2
	46~50세	115	31.0	50	13.5		판매 숙련직	27	7.3
	51세 이상	45	12.1	14	3.8		자영업	95	25.6
학력	중졸 이하	21	5.7	76	20.5	사무직	161	43.4	
	고졸	116	31.3	171	46.1	관리직	56	15.1	
	대졸	234	63.1	124	33.4	전문직	24	6.5	
종교	무	165	44.5	96	25.9	부부연령차이	동갑	48	12.9
	유	206	55.5	275	74.1		1~2세	72	19.4
결혼지속년수	5년 이하			16	4.3		3~4세	112	30.1
	6년~10년			55	14.8		5~6세	91	25
	11년~15년			72	19.4	7세 이상	48	13	
	16년~20년			158	42.6	수입	40만원미만	19	5.1
	20년 이상			70	18.9		40만원이상~60만원미만	85	22.9
자녀수	0			7	1.9		60만원이상~80만원미만	99	26.7
	1명			20	5.4		80만원이상~100만원미만	67	18.1
	2명			143	38.5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67	18.1
	3명			133	35.8	150만원이상	34	9.2	
	4명 이상			68	18.3	가족형태	핵가족	277	74.7
가정생활	1 단계			0.7	1.9		확대가족	94	25.3
	2 단계			29	7.8				
	3 단계			71	19.1				

가정생활주기 3단계 : 만자녀가 국민학교인 시기
 1단계 : 가정형성기 4단계 : 만자녀가 중·고·대인 시기
 2단계 : 만자녀가 학령전인 시기 5단계 : 만자녀가 취업, 독립한 시기

동의하는 비율은 10%, 40%, 46%로 더욱 낮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부부가 동시에 가장 많이 경험한 생활사건은 좀 더 여유있는 생활을 하지 못함 80%, 가정일로 인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함 64%, 자녀의 성적문제가 60%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부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일상사건임에도 부인은 주로 가정내적인 문제, 남편은 가정외적인 문제에 경험빈도가 높고 부부 모두가 경험하는 비율이 낮아 부부

상호간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부 공동경험빈도가 높아 가정경제측면에서 불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2) 부부간의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차이

경험한 생활사건으로 인하여 느낀 부담간의 정도를 4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후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차이의 일반적 경향

〈표 2〉 부부간의 생활 사건의 경험 여부 및 인지수준

생활 사건	무경험		부인만 경험		남편만 경험		부부 경험		인지 수준		
	f	%	f	%	f	%	f	%	부인	남편	
경제적·법적 문제	부모, 형제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거나 도와주었다.	98	26.4	42	11.3	49	13.2	182	49.1	1.41	1.31
	전체적으로 가족의 수입이 감소했다.	124	33.4	43	11.6	43	11.6	161	43.4	1.26	1.24
	가족원 가운데 법적인 문제가 생겨 법정에 관련되었다.	295	79.5	17	4.6	27	7.3	32	8.6	0.30	0.35
	지출이 증가하여 대출을 받았거나 돈을 빌렸다.	134	36.1	26	7.0	40	10.8	171	46.1	1.35	1.40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생활을 하였다.	93	25.1	43	11.6	44	11.9	191	51.5	1.54	1.46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부동산 등에서 손실을 가져왔거나 저축한 돈을 축내게 되었다.	144	38.8	49	13.2	45	12.1	133	35.8	1.33	1.23
건강문제	생활비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으나 문화비, 교육비에 좀더 투자하는 등의 여유있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	30	8.1	24	6.5	21	5.7	296	79.8	1.98	1.88
	부동산 관계법규나 조세법의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15	58.0	32	8.6	48	12.9	76	20.5	0.68	0.74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많이 아픈 일이 있다.	204	55.0	50	13.5	32	8.6	85	22.9	0.95	0.79
	부부 가운데 사고를 당하거나 많이 아픈 일이 있다.	164	44.2	53	14.3	41	11.1	113	30.5	1.25	1.10
	부모·형제, 가족원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136	36.7	48	12.9	43	11.6	144	38.8	1.47	1.35
	부부 가운데 갱년기를 경험하다.	164	44.2	40	10.8	41	11.1	126	34.0	1.03	0.98
가사 및 자녀양육 문제	나이든 부모가 건강이 나빠져서 집에서 보살피게 되었다.	229	61.7	31	8.4	31	8.4	80	21.6	0.79	0.70
	집안의 잡다한 허드렛일이 쌓여 있다.	67	18.1	91	24.5	29	7.8	184	49.6	1.58	1.12
	부모와 자녀사이에 의견 충돌이 많았다.	107	28.8	61	16.4	53	14.3	150	40.4	1.13	1.04
	자녀의 품행 문제로 학교(유치원)에서 상담한 일이 있다.	264	71.2	39	10.5	30	8.1	38	10.2	0.37	0.32
	자녀의 진로문제, 진학, 성적문제로 걱정을 했다.	74	19.9	45	12.1	19	5.1	233	62.8	2.03	1.76
	가정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27	7.3	87	23.5	20	5.4	237	63.9	2.07	1.49
가족친척·친구와의 관계	반복적인 집안 일에 짜증스러운 때가 종종 있다.	14	3.8	107	28.8	23	6.2	227	61.2	2.18	1.41
	당신 또는 배우자의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했다.	162	43.7	47	12.7	28	7.5	134	36.1	0.93	0.88
	가족들이 지켜야 할 집안 규칙을 안 지키는 일이 많았다.	55	14.8	58	15.6	40	10.8	218	58.8	1.53	1.38
	부모, 형제자매의 죽음을 겪었다.	185	49.9	50	13.5	29	7.8	107	28.8	1.31	1.10
	가까운 친구의 죽음 또는 결별을 하였다.	241	65.0	17	4.6	77	20.8	36	9.7	0.34	0.77
	시집, 친정, 처가집 식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110	29.6	95	25.6	41	11.1	125	33.7	1.26	0.87
부부	부모 봉양에 어려운 문제가 많다.	136	36.7	47	12.7	36	9.7	152	41.0	1.15	1.05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결혼이 있었다.	29	7.8	39	10.5	21	5.7	282	76.0	1.61	1.47
	부담스러운 휴가가거나 모임이 있었다.	85	22.9	55	14.8	59	15.9	172	46.4	1.14	1.16
	비가족원과 함께 살게 되었다.	185	49.9	32	8.6	29	7.8	125	33.7	0.88	0.78
	부부간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싸움이 잦아졌다.	63	17.0	60	16.2	24	6.5	224	60.4	1.62	1.36
	남편 또는 부인이 전보다 나를 신임하지 않는 일이 있다.	132	35.6	47	12.7	48	12.9	144	38.8	1.00	1.04

부부 문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듯 하다.	167	45.0	54	14.6	36	9.7	114	30.7	0.85	0.75
	남편 또는 당신의 과음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154	41.5	36	9.7	35	9.4	146	39.4	1.19	1.03
	부부간에 별거한 일이 있거나 각 방을 쓴 일이 있다.	237	63.9	40	10.8	29	7.8	65	17.5	0.63	0.49
	남편 또는 당신의 잦은 출장과 늦은 귀가로 문제가 된다.	160	43.1	52	14.0	41	11.1	118	31.8	0.98	0.78
직업· 일과 관련된 문제	학교, 직업, 일등으로 인해 가족원이 주기적으로 집을 떠나 있다.	264	71.2	20	5.4	22	5.9	65	17.5	0.45	0.43
	이사하여 주거지를 옮겼다.	141	38.0	30	8.1	17	4.6	183	49.3	1.16	1.04
	가장이나 성인 자녀가 직업을 그만 두었다.	299	80.6	24	6.5	15	4.0	33	8.9	0.40	0.32
	가장이나 성인 자녀가 새로운 직업으로 바꾸었거나 바꾸려한다.	257	69.3	27	7.3	24	6.5	63	17.0	0.59	0.56
	직업 또는 일의 변화로 인해 생활 시간을 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119	32.1	61	16.4	39	10.5	152	41.0	1.10	0.91
	가족원 또는 귀하께서 직장일 또는 일에 관련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었다.	99	26.7	64	17.3	61	16.4	147	39.6	1.41	1.32
	귀하 또는 가족원이 기타 사회활동에 시간 소모가 많거나 문제가 있었다.	118	31.8	61	16.4	57	15.4	135	36.4	0.94	0.91
귀하 또는 가족원이 직장에서 승진되지 않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았다.	195	52.6	38	10.2	39	10.5	99	26.7	0.70	0.73	

<상기 표는 남편과 부인의 경험 여부를 분석한 cross table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으며 chi-square 값이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적이며 인지수준은 4점만점의 평균점수임>

〈표 3〉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디스트레스 수준의 부부간 차이

	경제적· 법적문제		건강문제		가사 및 자녀양육 문제		가족·친척· 친구와의 관계		부부문제		직업과 일에 관련된 문제		전체 스트레스 인지수준		전체 디스트레스 인지수준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M	1.23	1.20	1.10	0.98	1.47	1.15	1.15	1.07	1.04	0.91	0.84	0.76	1.14	1.01	1.66	1.50
S.D	0.71	0.75	0.89	0.83	0.61	0.62	0.58	1.61	0.84	0.79	0.61	0.60	0.50	0.48	0.36	0.33
T값	1.01		3.26***		9.79***		2.75***		4.32***		2.66**		6.02***		7.82***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전체 생활사건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은 순위는 부인의 경우 반복적인 집안일에 대한 불만(21.17)점, 가정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함(2.06점), 자녀의 진로 및 성적문제(2.03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경우는 좀 더 여유있는 생활을 하지 못함(1.87점), 자녀의 진로 및 성적문제(1.75점)가 가정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함(1.4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편은 경제적문제에서, 부인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수행과 자아성취 욕구의 상충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생활사건 전체 및 6가지 하위영역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부부간 차이를 t-test한 결과 경제적 법적 문제를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과 전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표 3).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인 면에서 부부가 동시에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듯이 인지수준에서 부부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인지수준이 높음을 볼때 가정생활에서의 경제문제의 중요성과 그 심각성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부부 상호간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영역이 부부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수준의 큰 차이는 부부문제의 난이성을 여실히 드러

〈표 4〉 스트레스인지수준과 디스트레스수준의 부부간 차이

		스트레스 인지수준			디스트레스 수준		
		부 인 M	남 편 M	t 값	부 인 M	남 편 M	t 값
연령	35세이하	1.10	0.86	3.14**	1.59	1.44	3.32***
	36~40세	1.13	1.03	2.44*	1.68	1.53	4.16***
	41~45세	1.21	1.07	4.59***	1.70	1.53	4.88***
	46~50세	1.19	1.09	2.44*	1.63	1.48	2.51*
	51세이상	1.12	1.12	-0.06	1.55	1.42	1.65
학력	중졸이하	1.16	1.00	3.64***	1.67	1.53	3.31***
	고 졸	1.16	1.10	2.16*	1.65	1.53	3.97***
	대 졸	1.10	0.92	5.29***	1.66	1.44	6.43***
종교	무	1.10	1.04	1.46	1.64	1.51	3.54***
	유	1.15	1.01	6.28***	1.66	1.50	6.98***
직업	비 숙련직	1.21	1.30	-2.19	1.73	1.58	1.22
	판매 숙련직	1.26	1.21	0.72	1.74	1.52	2.93**
	자 영 업	1.15	1.07	1.78	1.68	1.56	3.25**
	사 무 직	1.05	0.93	3.91***	1.62	1.48	4.29***
	관 리 직	1.34	1.05	5.07***	1.68	1.43	4.56***
	전 문 직	1.06	0.94	1.91	1.65	1.45	2.28*
	F 값		2.71*				
부부 연령 차이	동 감	1.20	1.06	2.49*	1.67	1.50	2.78**
	1~2세	1.14	1.02	2.37*	1.64	1.50	3.50***
	3~4세	1.15	1.03	3.02**	1.65	1.46	5.06***
	5~6세	1.11	0.99	3.53***	1.67	1.53	3.32***
	7세이상	1.11	1.00	2.04*	1.68	1.54	2.36*
자녀수	무	0.81	0.73	0.55	1.51	1.26	2.38*
	1명	0.98	0.87	1.66	1.63	1.45	2.11*
	2명	1.15	0.97	5.28***	1.67	1.48	5.12***
	3명	1.12	1.01	3.17**	1.64	1.52	3.71***
	4명이상	1.24	1.21	0.67	1.69	1.54	3.40***
F 값		4.45***					
생활 주기	1단계	0.85	0.70	1.00	1.46	1.24	2.39*
	2단계	1.03	0.86	2.09*	1.55	1.43	1.52
	3단계	1.05	0.94	2.33*	1.63	1.48	3.42***
	4단계	1.18	1.06	4.85***	1.69	1.53	6.18***
	5단계	1.19	1.10	1.35	1.61	1.43	2.64**
F 값		2.67*					
결혼 지속 년수	5년이하	0.90	0.76	1.40	1.49	1.28	2.80**
	6~10년	1.04	0.87	3.17**	1.62	1.49	2.32*
	11~15년	1.10	1.00	2.40*	1.67	1.48	3.97***
	16~20년	1.19	1.09	3.03**	1.70	1.54	4.96***

	21년이상 F 값	1.19	1.05 3.58**	3.62***	1.62	1.46	3.25**
수	40만원미만	1.24	1.00	2.07*	1.71	1.50	1.82
	40만원이상~ 60만원미만	1.15	1.10	1.08	1.73	1.59	3.28**
입	60만원이상~ 80만원미만	1.13	0.95	4.51***	1.61	1.49	2.98**
	8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20	1.04	3.26**	1.65	1.48	3.30**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1.14	1.00	3.10**	1.66	1.42	5.72***
	150만원이상	0.98	0.99	-0.05	1.63	1.50	1.96*
가족 형태	핵 가족	1.14	1.03	4.96***	1.66	1.50	7.13***
	확대가족	1.13	0.98	3.42***	1.66	1.51	3.39***

(연령, 학력, 종교, 직업은 부부가 자기 다르므로 남편변인을 중심으로 부부가 짝을 이룬 값을 구했다.)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남편보다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음을 볼 때 주부들이 가정경영상 야기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대처 및 해결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상기의 내용을 다시 10가지 독립변인 하위집단별로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부부간의 차이를 t-test한 결과(표 4), 51세 이상 집단을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학력과 연령차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종교를 가진 집단에서, 직업은 사무직과 관리직에서, 자녀수 2명과 3명인 집단에서, 생활주기 4단계 집단에서, 결혼지속년수 11~20년을 제외한 집단에서, 수입은 60만~150만원 사이의 집단에서 부부간의 유의적인 차이 즉 남편보다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3) 부부별, 10가지 독립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차이 및 생활사건 하위영역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관계

연령, 학력, 종교, 직업, 부부 연령차, 자녀수, 가정생활주기, 결혼지속년수, 수입, 가족형태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차이와 남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차이를 부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4에서 유의적인 것만 F값 표시). 부인의 경우 독립변인에 따라 생활사건하위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으나(표 생략) 전체 인지수준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어 선행연구들과 일치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표 5〉 독립변인이 스트레스인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부부별 독립변인	B	β	R ²
부인	결혼 지속 년수**	0.84E-01	0.11 0.019
	연령 차이*	0.28E-01	-0.07 0.023
	수 입*	-0.21E-01	-0.06 0.025
	자 녀 수*	0.24E-01	0.04 0.026
	constant	0.95	
남편	자 녀 수**	0.75E-01	0.14 0.039
	종 교**	-0.11	-0.12 0.048
	직 업**	-0.48E-01	-0.10 0.056
	연령 차이**	-0.27E-01	-0.07 0.062
	결혼 지속 년수**	0.14E-01	0.18 0.068
constant	1.14		

남편의 경우는 직업, 자녀수, 생활주기, 결혼년수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부인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직업일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생활주기 단계가 높을수록, 결혼지속년수 11~15년인 경우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상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R²의 변화를 관찰하여 선택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표 5).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결혼지속년수, 연령차이, 수입, 자녀수에

〈표 6〉 부부별 생활사건 하위영역과 스트레스인지수 및 디스트레스 수준과의 상관

생활사건 하위영역	부부별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	스트레스 인지수준	디스트레스 수준
경제적·법적문제	.76 .71	.37 .23	
건강 문제	.60 .57	.34 N.S	
가사 및 자녀양육문제	.74 .71	.40 .33	
가족, 친척, 친구와의 관계	.74 .79	.31 .24	
부부 문제	.73 .72	.43 .34	
직업, 일과 관련된 문제	.73 .71	.33 .20	
스트레스인지수준			.51 .34

(상단은 부인, 하단은 남편의 r 값)

〈표 7〉 생활사건 하위영역이 스트레스인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부부 별 생활사건 하위영역	B	β	R ²	
부인	경제적·법적 문제	0.19	0.27	0.57
	가사 및 자녀양육 문제	0.17	0.21	0.77
	직업, 일과 관련된 문제	0.19	0.23	0.88
	constant	-0.13F-06		
남편	가족, 친척, 친구와의 관계	0.19	0.24	0.63
	부부 문제	0.14	0.23	0.79
	경제적·법적 문제	0.19	0.29	0.89
	constant	0.99E-07		

의해 3% 설명되며, 남편의 경우는 자녀수, 종교, 직업, 연령차이, 결혼지속년수에 의해 7%의 낮은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부부별로 생활사건 하위영역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관계를 보면, 부인은 전체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경제적 법적문제와의 상관인 r=.76, 남편은 가족, 친척 친구와의 관계가 r=.79로 가장 높으며 부부 모두 건강문제와의 상관인 가장 낮았으나 전반적

〈표 8〉 생활사건이 디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부부별 생활사건 하위영역	B	β	R ²	
부인	부부 문제***	0.01	0.23	0.185
	가사 및 자녀양육 문제**	0.90E-01	0.15	0.237
	건강 문제**	0.59E-01	0.14	0.259
	경제적·법적문제**	0.63E-01	0.12	0.272
constant	1.24			
남편	부부 문제***	0.11	0.25	0.131
	가사 및 자녀양육 문제***	0.11	0.20	0.164
	경제적·법적 문제***	0.38E-01	0.09	0.169
	건강 문제***	-0.33E-01	-0.08	0.174
constant	1.26			

으로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편의 건강문제와는 .57로 가장 낮아 육체적 건강에서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적음을 시사한다. 부부별, 생활사건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가 r=.50이하(표 생략)로 즉 변인간의 상호관련성이 적으므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여 R²의 변화를 관찰하여 선정된 하위영역은 (표 7)과 같다. 즉,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경제적 법적문제, 가사 및 자녀양육문제, 직업과 일에 관련된 문제에 의해 88% 설명될 수 있으며 남편의 경우는 가족, 친척 친구와의 관계, 부부문제, 경제적 법적문제에 의해 89%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부부간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디스트레스 척도에 의해 3점 만점으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부부간의 디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디스트레스 수준을 보면 부인 1.66점, 남편 1.50점으로 부인의 디스트레스 수준이 다소 높은 유의적인 차이로 나타났다(표 3). 이를 다시 각 독립변인 하위집단별로 부부간의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t-test한 결과(표 4)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역시 모든 집단에 더 남편에 비해 부인의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디스트레스 수준에서도 대부분의 부인들이 남편보다 심리적으로 더 우울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부별로 관련변인에 관한 분석을 Ony Way ANOVA와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영향력 있는 변인도 설명할 수 없었다(표 생략).

5) 생활사건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디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디스트레스 수준과의 상관을 보면 부인의 경우는 $r=.51(\beta=.51, R^2=.26)$, 남편은 $r=.34(\beta=.34, R^2=.12)$ 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인들은 전체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디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지며 생활사건들에 의해 디스트레스 수준도 26% 정도 설명될 수 있으나 남편의 디스트레스 수준은 더 영향력있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다시 생활사건 하위영역별로 보면 부부문제와 디스트레스 수준의 상관이 부인($r=.43$)과 남편($r=.31$) 모두 가장 높았다(표 6). 이를 다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부인의 경우 부부문제, 가사 및 자녀양육문제, 건강문제, 경제적, 법적문제에 의해 디스트레스 수준이 27% 설명될 수 있으며 남편의 경우도 부부문제, 가사 및 자녀양육문제, 경제적, 법적문제, 건강문제에 의해 17%의 설명력은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사건 하위영역이 디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설명력은 부인이 높으나 변인은 부부가 별 차이가 없었다.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때 몇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디스트레스 인지수준에서 부부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내용에 따라 부인과 남편의 스트레스 조사가 각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전반적으로 남편보다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수준이 더 높음을 볼때 지금까지 남성중심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의 스트레스가 더 과중할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

강연구 및 치료에서도 남성의 스트레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여성스트레스로 야기되는 질환에 등한시 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앞으로 부인 즉 여성의 스트레스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는 물론 여성정신건강상 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로,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들이 부인은 가정내적인 문제, 남편은 가정외적인 문제로서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과 그 맥을 같이하여 자기 다른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Sieber의 연구에서도 미래사회에서는 가족외적 사회활동참여가 보다 많은 주부가 더 문제가 적다고²⁵⁾ 한 바와 같이 부인은 사회적인 참여, 남편은 가정내적인 삶의 참여로 부부가 공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및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가정학교육을 받은 부인들이 그렇지 않은 부인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더 잘 유지하도록 스스로 인식함을 볼때¹¹⁾ 가정학 교육의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규명과 그 경로가 분석되고 성편향적 문항을 적절히 배제한 도구의 개발, 부부간의 스트레스 감염 등 더욱 심층적인 연구들이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1. Marchall, Bill Chifford, "An Analysis of Frequency and Segquential Communicative Patterns in Stressed and Non-Stressed Couples: An Exploratory Study," Brigham Young University, Ph.D., 1984, p. 16.
2. Harmelink, Ruth Irene, "Gender Differences Perceptions of Family Stressors," Iowa State University, Ph.D., pp. 1-37.
3. A. Baum, J.E. Singer and C. Baum, "Stress and Environ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37, 1981, p. 4.
4. H.I. Mccubbin, C.B. Joy, A.E. Cauble, J.K. Comeau, J.M. Patterson and R.H. Needle,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

- 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1980, pp. 855-860.
5. 최동숙, "대학생의 가정생활의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논문집 「사회과학연구」 27, 1988, p. 158.
 6. 배종렬,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 방안,"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5, pp. 4~36.
 7. T.H. Holmes and R.H. Rahe,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1967, p. 216.
 8. Pakel, E.S. Prusoff. B.A. and uhlenhuth, E.H., Scaling of Life Events, *Arch. Gen. Psychiatry*, 25, 1971, 옥선화, 정민자, "가족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1, 1984, p. 82에서 재인용.
 9. 소숙희,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심여대석사학위논문, 1987, pp. 24-29
 10. Veit, C.T. and Weir, J.E.,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in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p. 740.
 11. 권경희, 한국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연구. 이대석사 학위논문, 1985.
 12. Anfani Joe, Mary Edna, "Coping behavior used in Mangement by Nigerian Educated working Housewives," Kaduna State, Nigeria,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6,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7-6.
 13. K.C. Faller, *Social work with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Macmillian Publishiny Co. Inc. New York, 1981, p. 44.
 14. Sara S. McLanahan, "Family Structure and Stress: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Two-Parent and Female-heade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2, 1983, p. 348.
 15. McCubbin, H. Wilson, L. and Patterson, J., "Family Inventory Life Events and changes (FILE)," St Paul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1.
 16. 김윤주, "일반인과 정신과 환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77, pp. 21-26.
 17. 최태진, "한국에 있어서 사회 재적응평가 척도에 관한 예비적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1980, p. 8.
 18. E.H. Uhlenhuth, et al., "Symptom Intensity and Life Stress in City," *Archives General Psychiat* 31, 1974, pp. 759~764.
 19. 옥선화, 정민자, "가족스트레스와 사회 심리적 족 자원에 관한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1984, p. 90.
 20. 장병옥, "도시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 방법에 관한 연구," 숙대석사학위논문, 1985.
 21. A. Booth, "Wife's Employment and Husband Stress: A Replication and Refutation," *Journ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4, 1977, p. 645
 22. R.J., Burke and T. Weir, "Marital Helpiny Relationships: The Moderators between Stress at Well-being," *Journal of Psychology*, 95, 1977, 128.
 23. Cheston, Sharn Elizabeth, "The Relationsh Between Family Life Cycle Stages and th Amount of Stress of long-Distance, Job Relate Relocation,"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Ed. I 1983,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
 24. Kennedy, Gregory Earl, "CollegeStudents' Peceptions of Family Cohesion, Adeptability an Stress in Blended, Single Parent and Intac Families," The Florida University, Ph.D., 19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9.
 25. Bernard, T., "Stress and the Family," *Jornal o Home Economics*, 68-5, 1976, p. 6-7.
 26. Susan Gore and Thomas Mangione, "Socia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dditive an Interactive Models of Sex Differences," *Journa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1983, pp. 30-301.
 27. Elizabeth Menaghan, "Marital Stress and Family Transition: A Panel Analysis," *Journal o Marriage and Family*, 45~2, 1983, p. 373.
 28. S. Rosenfiled,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Do Women Alway have higher R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1980, p. 33.
 29. Allan P. Jones and Mark C. Butler, "A Role Transition Approach to the Stress of Organizationaly Induced Family Role Di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2, 1980.
 30. P.T., Nelson and C.W. Nelson, "Personal and Family Stress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73-3 1981, po. 34.
 31. Baillie, Sheila T., "Housing and Neighborhood Related Stress of Female heads of Single-Parent

- Household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Ph.D., 1986, p. 40, pp. 148-150.
32. Leonard Pearlin, "Marital Status, Life-Strai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1977, pp. 704-715.
33. Alan Berkowitz and H. Wesley Perkins, "Stress Among Women: Work and Family as Interacting System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6-1, 1984, pp. 161-166.